구약 예언의 성취

요한 8:46-59; 요한 1:1-14; 창 22:1, 2(요한 3:16)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있지 아니하였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연구 요 3:16 / 1장 1절

기독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세례 받기 전일 때에 하셨던 사실들이 생각나게 되었다. 성령은 모든 예언자들에게 그들은 말하게 하시는 거룩한 사람이시다." 사도행전 3:18.

"But I have greater witnesses than that of John: for the works which the Father hath given me to finish, the same works that I do, bear witness of me, that the Father sent me." 요한 5:36.

"예수님은 그분에게 맡겨진 그들에게 그들의 아브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삭에게 오셔서 그들의 언약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

요한복음 8장 12~30절을 읽어 보세요. 이기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역학 관계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부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은 무엇인가요?

Read John 8:12-30. What is the dynamic here between Jesus and these religious leaders? Which texts best explain why many rejected Him?

"하나님은 빛이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온 인류 가족과의 관계를 선언하셨다. 태초에 '어둠에서 빛이 비쳐'게 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6. 그 본문에서 말씀 별빛 이상입니다. 그분은 상징적인 것을,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추셨던 것처럼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유대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랬빛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침투하듯이 의의 태양의 빛도 모든 영혼에게 비춥니다." DA 464.3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던 성전에서 나아온 시므온은 그분을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2.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익숙한 예언을 그분에게 적용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성령께서는 '네가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일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에게 빛으로 주어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6, R. V.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예수님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이해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DA 465.1

"바리새인과 통치자들에게 이 주장은 오만한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듯이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분의 외모와 그분의 사역은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 상반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결함이 대적들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려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DA 465.3

"God is light; and in the word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Christ declared His oneness with God, and His relation to the whole human family. He was the light in the beginning had caused "the light to shine out of darkness." 2 Corinthians 4:6. He is the light of sun and moon and star. He was the spiritual light that in symbol and type and prophecy had shone upon Israel. But not to the Jewish nation alone was the light given. As the sunbeams penetrate to the remotest corners of the earth, so does the light of the Sun of Righteousness shine upon every soul." DA 464.3

"To the Pharisees and rulers this claim seemed an arrogant assumption. That a man like themselves should make such pretensions they could not tolerate. Seeming to ignore His words, they demanded, "Who art Thou?" They were bent upon forcing Him to declare Himself the Christ. His appearance and His work were so at variance with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that, as His wily enemies believed, a direct announcement of Himself as the Messiah would cause Him to be rejected as an impostor. DA 465.2

"But to their question, "Who art Thou?" Jesus replied, "Even that which I have also spoken unto you from the beginning." John 8:25, R.V. That which had been revealed in His words was revealed also in His character. He was the embodiment of the truths He taught. "I do nothing of myself," He continued; "but as my Father hath taught Me, I speak these things. And He that sent Me is with Me: the Father hath not left Me alone; for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He did not attempt to prove His Messianic claim, but showed His unity with God. If their minds had been open to God's love, they would have received Jesus." DA 465.3

11월 22일 금요일

추가 생각

"너희는 예수를 따라 탄탄하지만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가 판단하면 나의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미 자신의 일을 한다고 선언하셨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여 할 길에 대해 사역나 통치자들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우주의 창조주인 가장 높은 권위자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스러운 직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달어 주셨으며, 죄를 용서하셨고,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성문에 쫓아 내셨으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삶을 정죄하고 그들의 숨겨진 죄를 책망하셨고,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2SP 355.1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면 그때에야 나가 그분이라는 것과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 외에는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나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함이다. 이 말씀은 감격스러운 능력으로 말씀하셨고,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술을 닫게 하였으며, 주의 깊은 마음으로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며 예수님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계속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 내 제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배척하고 마음을 굳게 먹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나는 내 길을 가노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내 죄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2SP 355.2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더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 즉 불신앙과 악독한 억억의 노예들, 복수에 애쓰며 불린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지어다니 죄의 종이라'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최악의 속박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브라함의 참 자녀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2SP 356.1

"예수님은 불쌍하게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위를 행하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등급 부분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 곧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도 나를 사랑하겠거니와 나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들어오고 그분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려 있었다면, 그들은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하신 상태를 단대하게 지적하셨습니다."- 2SP 356.2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내 날을 보시고 기뻐하시니 그가 보시고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이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들으며 비웃으며 '네가 아직 오십 살도 안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희박감에 사로잡힌 그들의 영혼에 진실을 일으키는 위엄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웅장하고 끔찍한 의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자 장시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에 속한 신성 모독자라고 비난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하니 예수께서 몸을 숨기고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그를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2SP 357.2

"Ye judge after the flesh; I judge no man. And yet, if I judge, my judgment is true; for I am not alone, but I and the Father that sent me.' Thus he declared that he was sent of God, to do his work. He had not consulted with priests nor rulers as to the course he was to pursue; for his commission was from the highest authority, even the Creator of the universe. Jesus, in his sacred office, had taught the people, had relieved suffering, had forgiven sin, and had cleansed the temple, which was his Father's house, and driven out its desecrators from its sacred precincts; he had condemned the hypocritical lives of the Pharisees, and reproved their hidden sins; and in all this he had acted under the instruction of his Heavenly Father. For this reason they hated him and sought to kill him. Jesus declared to them: "Ye are from beneath; I am from above. Ye are of this world; I am not of this world." 2SP 355.1

"When ye have lifted up the Son of Man, then shall ye know that I am he, and that I do nothing of myself, but as my Father hath taught me.' And he that sent me is with me; the Father hath not left me alone; for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These words were spoken with thrilling power, and, for the time, closed the lips of the Pharisees, and caused many of those who listened with attentive minds to unite with Jesus, believing him to be the Son [of] God. To these believing ones he said, "If ye continue in my word, then are ye my disciples indeed. And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But to the Pharisees who rejected him, and who hardened their hearts against him, he declared: "I go my way, and ye shall seek me, and shall die in your sins; whither I go, ye cannot come." 2SP 355.2

"But the Pharisees took up his words, addressed to those who believed, and commented upon them, saying, "We be Abraham's seed, and were never in bondage to any man; how sayest thou, Ye shall be made free?" Jesus looked upon these men,—the slaves of unbelief and bitter malice, whose thoughts were bent upon revenge,—and answered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Whosoever committeth sin, is the servant of sin." They were in the worst of bondage, ruled by the spirit of evil. Jesus declared to them that if they were the true children of Abraham, and lived in obedience to God, they would not seek to kill one who was speaking the truth that was given him of God. This was not doing the works of Abraham, whom they claimed as their father. 2SP 356.1

"Jesus, with startling emphasis, denied that the Jews were following the example of Abraham. Said he, "Ye do the deeds of your father." The Pharisees, partly comprehending his meaning, said, "We be not born of fornication; we have one Father, even God." But Jesus answered them: "If God were your Father, ye would love me; for I proceeded forth and came from God; neither came I of myself, but he sent me." The Pharisees had turned from God, and refused to recognize his Son. If their minds had been open to the love of God, they would have acknowledged the Saviour who was sent in the world by him. Jesus boldly revealed their desperate condition:— 2SP 356.2

"Ye are of your father the devil, and the lusts of your father ye will do.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and abode not in the truth, because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speaketh a lie, he speaketh of his own;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it. And because I tell you the truth, ye believe me not.' These words were spoken with sorrowful pathos, as Jesus realized the terrible condition into which these men had fallen. But his enemies heard him with uncontrollable anger; although his majestic bearing, and the mighty weight of the truths he uttered, held them powerless. Jesus continued to draw the sharp contrast between their position and that of Abraham, whom they claimed to be:— 2SP 357.1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was glad.' The Jews listened incredulously to this assertion, and mocked, "Thou art not yet fifty years old, and hast thou seen Abraham?" Jesus, with a lofty dignity that sent a thrill of conviction through their guilty souls, answere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For a moment, silence fell upon all the people, and the grand and awful import of these words dawned upon their minds. But the Pharisees, speedily recovering from the influence of his words, and fearing their effect upon the people, commenced to create an uproar, railing at him as a blasphemer. 'Then took they up stones to cast at him; but Jesus hid himself, and went out of the temple, going through the midst of them, and so passed by." 2SP 357.2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5-8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